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전 '동행 그리고 공명'展...21일까지 은암미술관

낮선듯 익숙한 '동행'...다른듯 같은 '공명'

‘한국적 모더니티 추구’ 작가 16명 참여
베트남 현대미술 조망, 경험·사상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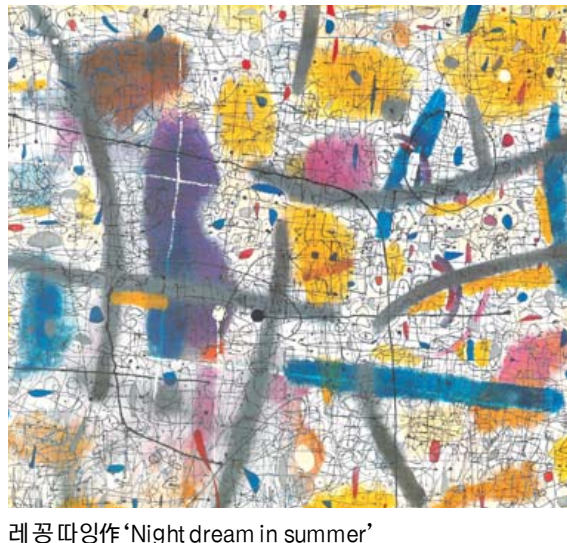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수 천 년 동안 외세 침략과 항쟁이란 고난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이겨내고 생존했다. 전통 유교적, 동양 전통의 철학과 규범, 예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또한 동질성을 가지며 지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온 양국의 문화예술교류와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전 ‘동행 그리고 공명’전이 오는 21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존엽작 '정원-행복한하루'



레 공 파인작 'Night dream in summer'



부 상 파이작 '하노이풍경 III' <은암미술관 제공>

이번 기념전은 양국의 동행적 관계가 수교 이후 더 큰 공명으로 울리길 희망하며 기획된 전시다.

‘에폴 드 인도차이나’ 미술학교로부터 뿌리 내린 베트남 미술계는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많은 미술가를 배출하고 있다.

베트남 미술의 대표적 장르는 실크화·목판화·라카 페인팅으로 전통적 장르에서 아직까지도 그 영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라카화와 평면화화 작품 17점을 선보인다.

부 상 파이는 베트남 화단의 제1세대 서양화가로, 베트남 근현대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거장이다. 하노이의 아름다운 풍경 및 소박한 삶을 그려낸 작품들로 유명하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원로 작가인 레 공 파이는 토렘비즘에 기인한 향토적 분위기를 토대로 회화작품에서 단순화된 인체의 특징과 볼륨감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응우옌 반 그엉, 응우옌 티 뚜언, 응웬 때 주이, 람 덕 만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베트남 현대미술의 동향과 향토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출품하는 한국 작가는 김해성·서병욱·신도원·이선복·이장한·이존립·이호국·임종호·장진수·조근호·주미희·채관병·채종기·채종태·황순철·한희원 16명이다.

한국적 모더니티를 잘 드러내는 이들로, 미국 중심의 서구생활과 문화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관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해왔다. 베트남 작가들의 경험과 사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파견된 베트남 학생인턴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음식문화체험과 베트남 전통 수상인형극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은암미술관 관계자는 “다각적인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생각이 더 커질 수 있길 기대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양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베트남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확산돼 폭넓은 문화예술 교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양국 우호관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박준희 '고요한 시간 속에서'

광주미협 한국화대전 대상 수상

최우수상 이화영, 우수상 박진현·김지우·손수월

광주미협회 제34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대상에 박준희 씨의 한국화 ‘고요한 시간 속에서’가 선정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한국화, 전통미술 2개 부문에서 참가작 276점이 출품된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58점, 입선 94점 등 총 157점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은 전통미술 부문 이화영 씨의 ‘얼씨구~좋다!’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한국화 박진현 씨의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전통미술 부문 김지우 씨의 ‘가을도’, 손수월 씨의 ‘장생도(염원)’가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500만원,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준희작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입상작 전시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광주예총 백련, 지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최명진기자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포럼’

‘It’s not just here’주제...오늘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민주주의 상징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광주문화재단에서 12일 오후 3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 민주주의 콘텐츠가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의 현장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포럼 주제인 ‘It’s not just here’의 의미 역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더 이상 광주만의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불려진 사례를 통해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세계 여러 곳의 국가폭력과 민주화 현장에서 불리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강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깊은 내면의 다짐과 아픔을 승화한 노래로, 전 세계 민중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관기 광주교육대 교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사회적·인문학적·음악적 평가와 확장성’이라는 주제로, 심어송라이터이자 서울민예총 이사장인 손병휘는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의 현장이야기’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 김대현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열린다. 이미진 피스 술가 대표, 이진 정치철학자, 유희성 뮤지컬



‘님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

광주 예술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해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2부 순서에서는 뮤지컬 광주 배우(조휘·최지혜·김은숙)가 참여하는 갈라 공연, 공연단체 순수팀과 손병휘가 함께 구성하는 무대가 진행된다.

황종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가 널리 확장되는 데 이번 포럼이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도시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

독립큐레이터그룹 오버랩 '투명한 사회'展



김자이작 'Reside'

<오버랩 제공>

최근 개발계획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 장소로 재차 주목을 받았던 옛 광주교도소를 탐구한 전시가 펼쳐진다.

독립큐레이터그룹 오버랩의 도시·지역 연구 프로젝트 ‘투명한 사회’전이다. 지역 예술가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여러 차례 거듭된 개발 계획을 속

방치돼 있는 이 장소를 또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채집과 기록의 작업을 진행한 김자이 작가의 ‘Reside’, 107㎡ 면적의 옛 광주

교도소를 3D모델링하고 거울로서 자신을 배치한 김현돈 작가의 ‘Reason...희喜,노怒,애愛’, 이동성을 통제하는 수많은 최창살문과 각기 다른 시간성을 담아 조각적 접근을 한 배수민 작가의 ‘시간탐’,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발췌된 질문에 그 단서를 제시한 최성욱 작가의 ‘통제의 언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전남대 5·18연구소와 협력해 광주교도소의 개발계획과 역사, 공간분석 등 관심주제에 따른 연구와 세미나를 병행해 인문사회학적 분석과 상상력

을 더했다.

박경섭 문화인류학 박사의 ‘광주교도소 부지 관련 계획과 상상’,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원의 ‘Re 옛 광주교도소 view’, 정수남 전남대 사회학과와 ‘감옥, 감점통치의 극지’가 그 결과물이다.

전시 기획을 맡은 김선영 오버랩 대표 표는 “우리는 곧 사라질지 모를 장소에 다양한 시각적 해석을 더해 공문화함으로써 이 장소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왔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시민사회로 전해져 더 큰 상상과 기대가 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12일까지 월산동 오버랩에서 열리며, 온라인 전시는 weavinglab 웹페이지에서 영구적으로 볼 수 있다.

/최명진기자

광주전남

수목장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장묘 추세는?

봉분, 봉안(납골)



자연장,수목장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수목장 전문업체입니다.

상담문의

062-464-3466

고민은 좋은 자리만 놓칠 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